

어르신 안전 살피는 노인돌봄 종사자 “따뜻한 전남 실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서

550여 종사자 건강증진대회

힐링강연·문화공연 등 재충전

전남도는 지난 12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를 열어 업무 스트레스로 쌓인 마음을 재충전하고, 동절기 어르신 안전 살피기에 매진하는 등 따뜻한 전남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강연과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노인 돌봄 업무에 공로가 큰 종사자 22명에게 도지사 표창도 수여했다. 힐링강연은 개그맨 이승윤이 ‘마음을



전남도는 지난 12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를 열었다. 노인 돌봄 업무에 공로가 큰 종사자 22명에게 도지사 표창도 수여했다.

치유하는 화복에너지’를 주제로 강의해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했다.

특 biệt히 문화예술공연으로 준비한 가 아금공원은 종사자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 참석 종사자들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잠시 잊고 종사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르신이 매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가족보다 가까이에서 늘 곁을 지켜준 종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다”며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어르신 한과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어르신 10만여명

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이나 전화로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어르신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임방울 명창 ‘승고한 정신’ 본받겠다”

“국창 임방울 선생님을 기리는 상을 받게 돼 가문의 영광입니다. 판소리의 보급·계승을 위해 앞으로도 후학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제7회 국창 일방울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평민 명창(79·사진)은 13일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박 명창은 이어 “임방울 선생님의 애창 곡은 ‘쑥대머리’와 ‘호남가’, ‘추악’이다. 특히 ‘쑥대머리’로 일제강점기, 민족의 한(恨)을 소리로 담았던 임방울 선생님의 승고한 예술정신이 담겨있다”며 “이같은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음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가 수여하는 ‘국창 일방울상’은 ‘임방울국악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가운데

국창 임방울 선생의 승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판소리 계승 보급 진흥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물에 주어진다.

박평민 명창은 1980년 33세에 판소리에 입문, 국가무형유산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2009년 제17회 임방울국악제 명창부 대통령상을 받았다.

국창 조상현 선생에게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를 사했으며, 광주시립국극단 수석 단원으로 재직하면서는 전통창극 심청전, 춘향전, 놀보전, 배비장전 정기 공연에 주연 및 조연으로 활동했다. 특히 창극 심청전에서 심봉사 역으로 출연해 서울과 울산 공연에서 열연하는 등 판소리 성지 여항 광주의 예술혼을 널리 알렸다.

퇴직 후에는 원도(2년), 함평(5년) 국



박평민 명창 ‘제7회 국창 일방울상’ 수상 판소리 보급·계승 공로 후학 양성 매진

악 동호인을 대상으로 판소리 교실을 운영했고, 최근 광주와 목포를 왕래하며, 판소리연구소를 운영, 국악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45년간 한 길을 걸어온 그는 그동안 심청가 완창 발표회 2회, 제자 발표회 3회, 유마 발표회 5회, 문화예술상, 판소리 학생지도자상 3회, 전통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악 진흥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중채 이사장은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수상자들이 부러워할 좋은 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회 국창 일방울상시상식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임방울판소리체험장 6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채경 기자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벽지·장판 교체 등 지원…재범 예방·정서 안정 기여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13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 장성읍에서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가족 2명·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낡은 벽지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정비하는 등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보호관찰위원 장성지구협의회와 한국나눔연맹의 후원금을 통해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취지다.

현장에는 장성 지역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공사를 진행했다.

개선된 보급자리를 받은 대상자는 “깨끗한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재범 방지와 법질서 준수를 다짐했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재범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13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돕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자에게 주거개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

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영광 홍농파출소, 교통안전 취약지 환경 개선

한빛원전본부·홍농읍 자율방범대 등과 협업 추진

전남 영광경찰이 교통안전 취약지 환경 개선에 나섰다.

영광경찰서 홍농파출소는 최근 한빛원자력본부, 홍농읍 자율방범대, 영광종합병원 파랑새 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농 안심(ZONE)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해당 사업은 ‘한빛원자력본부 지원사업’의 하나로 범죄 예방과 지역주민 제각각 안전도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이 협업체로 추진한다. 홍농파출소는 야간 순찰 중 발견한 교차로·어두운 마을 골목길 등 총 25곳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가로등을, 교통사고 취약지역 및 어린이·여성 안심귀갓길에 고정형 센서 경고등(시선 유도봉)을 홍농자율방범대와 함께 설치했다.

이를 통해 홍농읍에 거주하는 고령노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등·하굣길 어



린이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경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한수원, 지자체,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

고흥, 보행안전주간 릴레이 캠페인 실시

고흥군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고흥읍 보행자 우선도로와 고흥전통시장에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자전거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릴레이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고흥군을 비롯해 고흥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군민을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홍보,



보행자 보호 의무 홍보 광고지 배포, 안전수칙 안내 및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보행자 우선문화 확산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군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신회진(논산 참약사대온약국) 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씨(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 차녀 박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 양=11월 16일 일요일 낮 12시30분, 드레스 웨딩을 신관 지젤홀 1층(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알림

▲마리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리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시니어물러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운세 (음력 9월 25일)

48년생 내세하지 않음이 차라리 더 나은 것
60년생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72년생 감정을 공격한 장소서 풀지 말라
84년생 새 의상 구입해서 분위기를 바꿔라
96년생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51년생 재물에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자초한다
63년생 소모적임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
75년생 후배에게 빈틈 보이는 여유를 가지라
87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99년생 나의 뜻이 되는 걸 찾아보라

54년생 아랫사람과 화해와 양보에 힘써라
66년생 배우자를 놀인다면 이름과 종을 것
78년생 나그네 떠돌아다니도 한다
90년생 습관적인 행동을 주의하라

57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69년생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고 보게 될 것
81년생 하늘에서 신을 내리는 형상
93년생 화합해 일하면 유리한 결과 나타난다

49년생 안에서부터 세나 좋은 기운 감돈다
61년생 일이 많아지니 마음은 편안하다
73년생 충격적 소식 듣고 머뭇거리게 된다
85년생 거래 이루어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
97년생 취직의 길이 열리겠다

52년생 문서를 주고 받을 좋은 운세
64년생 도움을 빌리면 모든 일이 잘된다
76년생 발바닥에 불난다
88년생 소망이 이뤄지겠다

55년생 손해 보지 않으려면 말을 줄여라
67년생 명맥 유지되니 앞서가지 말라
79년생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취할 수 있다
91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질 없다

58년생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70년생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82년생 배우자의 마음 돌릴 길이 없구나
94년생 친구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자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호랑이



뱀



원숭이



돼지

50년생 아랫사람과 거래 피하고 보충지지 마라
62년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
74년생 마음이 넉넉한 날
86년생 도움을 빌리면 모든 일이 잘될 것
98년생 가족 조연 듣고 계획 세우라

53년생 진면모를 접하게 된다
65년생 서두르지 마라
77년생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된다
89년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다

56년생 관계를 떠나서 냉정히 돌아켜 보자
68년생 물고기 출현해 변해 용이 되는 형상
80년생 귀하게 원하는 사업하게 된다
92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도록 하라

59년생 거래는 절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
71년생 지인의 말은 무시해도 좋으리라
83년생 부동산에 미련을 가지지 말 것
95년생 친구와 상의하면 길이 보인다